

“아이 맡길 곳 없어 정말 막막하네요”

도내 어린이집 489곳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휴원 맞벌이부부 돌봄 수요문... “아이에게 너무 미안” “양육 휴가 자유롭게 쓰는 사회분위기 조성 절실”

“3, 5살 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부탁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죄송할 뿐이다.” “감골수확중인 부모님에게 아이를 바랄라고 할 수도 없어, 가까운 지인에게 어렵게 며칠만 부탁한 상황인데 휴원기간이 더 연장돼 다음주가 걱정이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제주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중지와 함께 489곳의 유치원에도 임시휴원 명령이 내려지면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맞벌이나 다자녀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긴급돌봄이 이뤄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 곳곳에서 하루에 두 자릿수 이상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21~24일 제주도 소재 365개 어린이집에 내렸던 임시휴원 명령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면서 서귀포시 소재 어린이집 124곳도 추가로 휴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른 영유아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맞벌이 부부들은 감염병이 번지며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 막막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연말인데다 앞서 지난 2~3월에도 어린이집 휴원이 이뤄졌던 터라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연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휴원명령이 내려진 지난 21일과 22일 제주도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체 아동(만 8080명) 중 등원율은 각각 19%, 17%로 나타났다. 정상 운영된 서귀포시의 경우 22일 등원율은 67%였다.



마스크 쓰고 즐기는 패들보드 23일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 쓴 채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이상국기자

현실속으로 더 들어가보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차이가 확연하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올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연가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공무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올해 10월 복무규정이 개정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이 확대됐다. 감염병으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쓸 수 있고, 휴가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최대 3일(한 자녀는 2일)은 예전처럼 유급휴가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905명이 2384건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897명이 2255건을 받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사정은 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보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더 길지만 현실에선 딴 판이다.

한 직장인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 선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할머니 등 가족에게 취학전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한다”며 “특히 민간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정작 필요할 때 육아휴직이나 연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만 할게 아니라 아이 양육 관련 휴가를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사회분위기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 2년간 시행 새별오름은 추후 결정기로

많은 탐방객들로 인해 훼손된 제주 명품 오름인 용눈이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2년간 시행된다. 또 사려니숲길 내에 위치한 물맞오름 등도 1년 휴식년제를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오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오름 관리방안을 마련, 이 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도 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맞오름 등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

장한다. 아울러 도는 도내리오름, 문석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새별오름에 대해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 및 입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취사·야영 행위가 제한된다.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금탁기자 haru@halla.com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끔찍마”

제주시, 내년 1월부터 4.5km 구간 단속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맞춰 성판악 일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시는 올해 2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성판악 입구~교래3거리 4.5km 구간에서 내년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현장단속반 3개조(12명)를 편성했고, 내년 1월 2곳에 무인단속 CCTV(폐쇄회로TV)도 설치한다.

이 도로는 그동안 성판악코스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하고, 일부 차량들은 차선까지 침범해 주·정

차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4.5k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도로시설물 정비와 2km 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도 마쳤다.

이달 초에는 국제대 입구에 199대 규모의 환승주차장도 개장, 성판악코스 한라산 탐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성판악 주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기 위해 성판악과 공항·부두 등 주요 관광지 동선 17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렌터카업체에도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CCTV 전광판(262대)도 활용해 알려나가고 있다. 문미숙기자

제주도·교육청, 코로나19 공동대응반 구성

학원시설 자발적 휴원 유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분야 공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지난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와 학원 등 교육 분야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대응반 구성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협업 강화를 통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백야카데미 학원강사와 접촉 학생 16명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아울러 이날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188개 유·초·중·고교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한편 교육청과 학원총연합회는 학원시설에 대한 자발적 휴원 유도를 통해 도내 1564개소 가운데 838개소(제주시 704, 교습소 134)가 휴원하도록 권고했다. 백금탁기자

방역지침 무시했다 ‘된통’... 28명 검찰 송치

자가격리중 이탈·유증업소 불법영업하다 적발 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적용... 4명 수사중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방역지침을 무시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등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28건

(32명)을 적발해 이중 28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 사례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8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증업소 업주 등 6명도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

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유증업소 불법 운영 등 위반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 수사에 나선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와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다혜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중앙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전액무료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충센터 (내선)전기공사 가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가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종사자, 공무원, 사회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선,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③ 취업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세무회계자격취득과정 교육생모집(국비지원)

FAT1급(전산회계1급)
1월18일~3월19일 09:30~13:30(월-목), 주4회
FAT2급(전산회계2급)
1월18일~2월19일 19:00~22:00(월-목), 주4회
문의 **064-742-9175**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on.com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사은대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하트드립니다.*

▶ **타나는전 가맹점**
▶ **제로페이 가맹점**
▶ **개별맞춤 상담**

▶ **샴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총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백성길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